

마음을, 세상을,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Malgo Hyanggiropge

only practice virtue  
can only make our hearts  
purified and emptied.



09 2024

맑음은 개인의 청정을,  
향기로움은  
그 청정의 사회적  
메아리를 뜻합니다.

- 法頂





진흙 속에서도 티 한 점 없이  
맑고 향기로운 꽃을 피워내는 연꽃은  
시민모임 「맑고 향기롭게」의 정신을 상징합니다.

## 2024 / 9

시절 인연	02	법을 보는 사람은 여래를 본다
법정 스님 편지	06	마른 바람 소리
법정 스님 따라 하기	08	듣고 또 들어 성인의 지혜를 이룬다
선재동자와 함께 떠나는 선지식 여행	12	정취보살正趣菩薩
다시 만나는 법정 스님	14	살 만큼 살다가 돌아가 의지할 곳이 어디인가
다실에서 / 류시화 시인의 시	19	낙타의 생
맑고 향기롭게 사는 사람들	20	맑고 향기롭게와 길상사 소식

### 마음을 맑고 향기롭게

- 욕심을 줄이고 만족하며 삽시다
- 화내지 말고 웃으며 삽시다
- 나 혼자만 생각 말고 더불어 삽시다.

### 세상을 맑고 향기롭게

- 나누어 주며 삽시다
- 양보하며 삽시다
- 남을 칭찬하며 삽시다.

###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 우리 것을 아끼고 사랑합니다
- 꽃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가꾸며 삽시다
- 덜 쓰고 덜 버립니다.

2024년 9월 1일 발행 / 통권 355호 / 등록일 1999년 6월 23일 / 신고번호 성북라00004호

발행 편집인 덕일 / 기획 편집 홍정근

발행처 (사)맑고 향기롭게 : 서울시 성북구 선잠로 5길 68 길상사 내

전화 (02)741-4696 팩스 741-4698

디자인 인쇄 디자인나경

홈페이지 <http://www.clean94.or.kr>

대표메일 [clean94@hanmail.net](mailto:clean94@hanmail.net).

길상사는 맑고 향기롭게 살아가기 운동을 실천하고 전파하기 위해 법정 스님에 의해 창간된 사찰입니다.

전화 (02)3672-5945 팩스 (02)3672-5947

홈페이지 <http://www.kilsangsa.or.kr>

대표메일 [kilsangsa@hanmail.net](mailto:kilsangsa@hanmail.net)

## 법을 보는 사람은 여래를 본다

- 법정 스님 1999년 설법전 석가모니불 점안식 법문 1

날씨가 몹시 무더운데, 점안 의식에 참여해 주신 사부대중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저도 오랜만에 점안 의식에 참여하면서, 의식이 지닌 그 의미를 새롭게 되새겼습니다. 내용을 모르는 분들은 끝도 없이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로 장황하고 지루하게 들리겠지만, 길상사에 새로운 부처님을 모시기 때문에 부처님이 중생을 널리 살피라는 육안(肉眼)과 법안(法眼)과 혜안(慧眼)과 천안(天眼)과 끝없는 무진안(無盡眼)을 갖추게 해달라는 그런 염원에서 하는 의식이었습니다.

부처님 당시에 있었던 일입니다. 아함경 상응부 경전에 나오는 부처님 법문입니다. 부처님의 많은 제자 가운데 박갈리라는 비구가 있었습니다. 박갈리라는 비구가 열심히 수행하다 병이 들어 이 세상 인연이 다 하자, 마지막 소원으로 죽기 전에 부처님을 다시 한번 뵈고 부처님께 하직 예배라도 드렸으면 한이 없겠는데, 이 몸으로 도저히 죽림정사까지 갈 수가 없다고 하자, 간병하던 스님이 그런 사정을 알고 부처님께 가서 여쭙니다. 부처님은 라자가하성 박 죽림정사(竹林精舍)에 머물고 있다가, 이 말을 듣고 성안에 있는 박갈리 비구를 찾아가 말씀합니다. “박갈리여, 너는 어떤 후회되는 일이나, 원통하게 생각되는 일은 없느냐?” “부처님이시여, 저는 적지 않은 후회와 원통하게 생각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거룩하신 부처님을 친견하고, 예배를 드리고 싶었는데, 몸을 움직일 수 없는 것이 후회되고 원통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부처님께서 황송하게 친히 와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박갈리는 가느다란 소리로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부처님은 정색하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박갈리여, 그렇게 말하지 말아라. 머지않아 썩어서 흩어질 내 육신을 보고 예배해서 어찌자는 것이냐?”

그러면서 이렇게 강조합니다. “법을 보는 사람은 나를 본다. 또한 나를 보는 사람은 법을 본다. 그러므로 나를 보려거든 법을 보아라.”

부처님의 몸이라 하더라도 목숨이 다하면 지수화풍(地水火風) 사대(四大)로 이루어진 몸이기 때문에 흩어지고 맙니다. 여기서 법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이 여기저기서 말씀하신 평소 가르침, 교법(教法)을 말합니다. 즉 우리가 부처님을 친견한다는 것은 부처님의 어떤 형상이라든가 육신을 뵈는 일이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 그 교법을 우리가 몸소 실행하는 일이라는 것을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이 가르침을 듣고 박갈리 비구는 모든 번뇌가 사라져서 아주 평온하게 생을 마치게 됐다고 경전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부처님은 스스로 자기가 예배의 대상이 아님을 강조하십니다. 스스로 길을 가르치는 사람, 고뇌에서 벗어나 해탈의 길을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불상은 언제부터 생겼는가? 부처님의 모습을 저렇게 조각해 놓은 불상은 언제부터 생겼는가? 물론 부처님 생존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부처님이 돌아가신 후에도 얼마 동안 불상은 없었습니다. 부처님이 돌아가신 후 그 제자들이

부처님이 안 계시고 허전하므로 부처님에 대한 상징물로 보리수에 대한 신앙이 생깁니다. 그리고 부처님이 여기저기 중생 교화를 위해 다니셨기에, 부처님 발에 대한 신앙, 돌에 부처님 발을 새기는 불족佛足 이런 신앙이 생기게 됩니다. 부처님이 45년 동안 중생 교화를 위해 말씀하신 설법을 그 당시는 수레바퀴로 상징하였습니다. 그래서 설법을 전법륜轉法輪, 수레바퀴를 굴리는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원전 3세기, 부처님이 돌아가신 200년 후에 만들어진 것이 탑입니다. 인도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인도 중부의 산치라는 시골 마을에 산치대탑Sanchi大塔이 있습니다. 회교도들이 많이 파괴해서 지금은 잔해만 남아있고 돌기둥과 사방으로 세워졌던 문만 남아있는데 그 산치탑에도 이런 상징물 보리수, 부처님의 발, 법륜에 대한 조각들이 남아있습니다. 불상은 그 당시 없었습니다. 불상은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기원전 4~500년 뒤부터 생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부처님이 생존했을 당시는 스님들과 신도들 기억에 생생했기 때문에 따로 상을 만들 필요가 없었고, 그 당시까지는 사회적인 유습이 상을 만드는 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4~500년이 지나서 후세 사람들은 도대체 부처님이 어떤 모습을 하고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 없으므로, 서서히 부처님에 대한 이미지를 벽에 그리고 돌에 조각해서 조성하게 된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길상사 극락전에는 아미타불이 계시죠? 아미타불은 극락세계를 주관하는 부처님입니다. 왜 길상사가 개원되면서 석가모니 부처님을 모시지 않고, 극락의 주불인 아미타불을 모셨는가 하면 전문가 몇 사람들에게 자문했습니다. 우리 사는 세상이 너무 험하고, 극악하여, 평온하고 안락한 사회가

이루어지도록 염원하고, 이 사바세계가 극락이 되기를 바라는 염원하에서 아미타불을 모시게 된 겁니다. 그런데 불교의 주불, 모든 불자의 근본 부처님은 석가모니불입니다. 아미타불이건 약사불이건 지장보살이건 모든 부처님과 보살들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석가모니 부처님의 설법으로서 아미타불, 약사여래, 지장보살이 다 나온 것입니다. 과거칠불過去七佛까지도 부처님의 설법을 통해서 일반에게 알려진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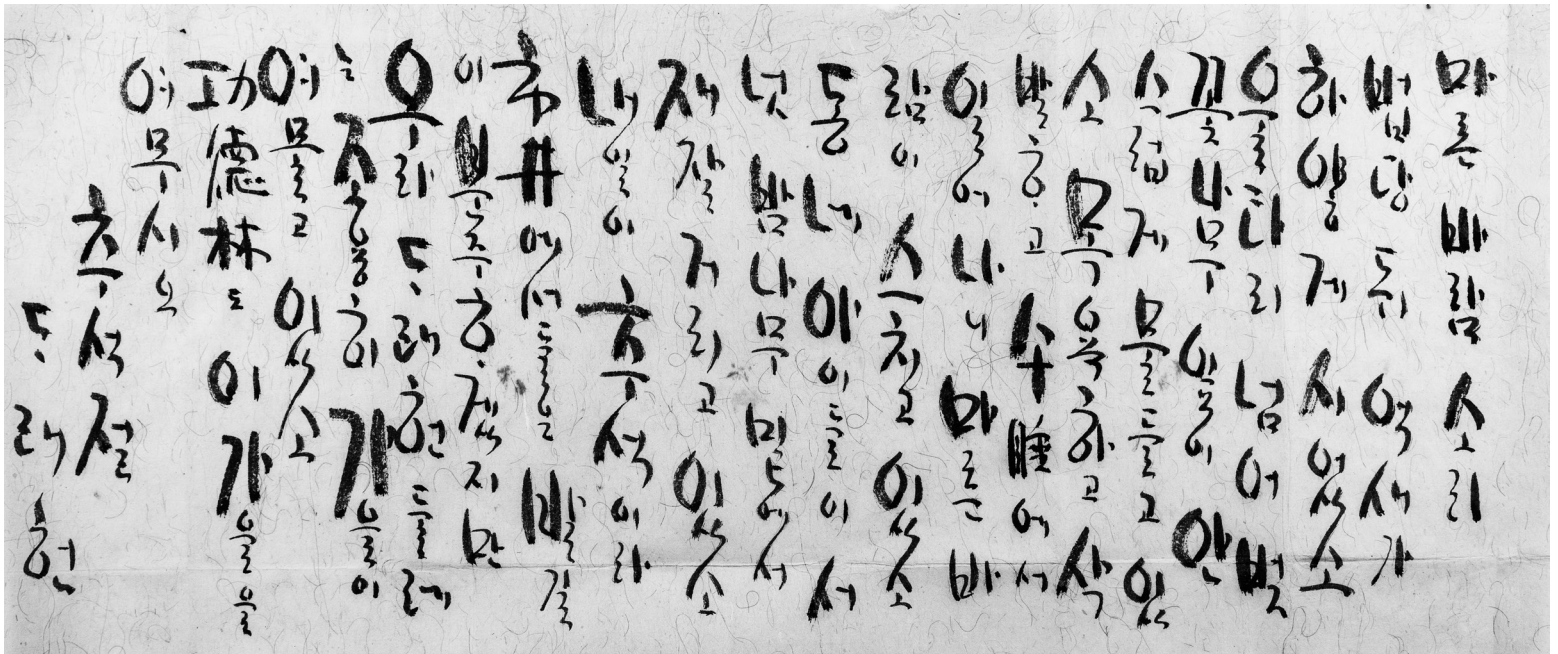
그러므로 석가모니 부처님만 유일한 부처님이 아니고, 누구나 깨달으면 모두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자기 본 마음으로 돌아가서 본 바탕이 되면 모두 부처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유일신을 신격화하는 다른 종교와는 달리 불교는 많은 불보살이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설법전 석가모니 부처님은 설법상說法相입니다. 손 모양은 시주를 많이 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 설법할 때의 자연스러운 손짓입니다. 어느 시대에 정착해 놓은 것이, 후세에 전달되어 이어져 온 것입니다. 물론 좌정하고 있는 상도 있고 여러 가지 상도 있지만 길상사의 경우는 도심 사찰이라서, 부처님이 많은 중생을 교화하시라는 뜻에서 설법상으로 모시게 된 것입니다.

오늘 설법전에 모신 부처님은 우리 모든 불자의 근본 스승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호에 이어집니다.)

- 이 글은 1999년 8월 11일 길상사 설법전 석가모니불 점안 법회에서 법정 스님이 하신 법문입니다. 길상사 설법전은 일요 법회, 불교 대학, 불교 강좌, 수련회 등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는 전각입니다. 1999년 석가모니 부처님을 주불로 봉안하고, 탱화 대신 십대제자를 병풍 형태로 모셨습니다. 이후 2008년 5월 건물의 노후화와 공간 활용 등의 이유로 기존의 골조는 그대로 두고 새롭게 불사하여, 석가모니불 뒤쪽으로 천불千佛을 원형으로 조성하였습니다. 이 법문은 어떤 책으로도 출간되지 않았습니다.

2. 법정 스님 편지



마른 바람 소리

법당 뒤 석재가 하얗게 시였소

울타리 넘어 벗꽃나무 잎이

안스럽게 물들고 있소

목욕하고 삭발하고

오수午睡에서 일어나니

마른 바람이 스치고 있소

동네 아이들이 서넛

밤나무 밑에서 재잘거리고 있소

내일이 추석이라

시정市井에서 들은 발길들이 분주하겠지만

우리 다래현 들레는

조용히 가을이 여물고 있소

공덕림功德林도 이 가을을 여무시오

추석절

다래현

\* 이 편지는 법정 스님이 1973년 송정속공덕림 보살님께 보내신 것입니다.



## 듣고 또 들어 성인의 지혜를 이룬다

슈라바스티에 수닷타라는 덕망 높은 부자가 살고 있었다. 그에 게는 호시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부처님의 가르침이나 의술 같은 것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다.

그런데 어느 때 호시가 중병에 걸려 몸져눅고 말았다. 친척과 친구들이 병문안을 올 때마다 의사에게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권했지만, 그는 한사코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

“나는 해와 달을 섬기며 왕에게 충성하고 부모에게 효도할 뿐이다. 이대로 죽는 한이 있더라도 이 뜻을 절대로 굽히지 않을 것이다.”

하루는 수닷타가 그를 찾아가 말했다.

“내가 섬기는 스승은 세존이라 하는데, 그분은 신의 공덕을 널리 입히므로 만나는 사람마다 복을 받는다네. 한번 시험 삼아 그 어른을 청해다 법을 듣고, 자네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빌어 보는 것이 어떨까. 그분을 섬기거나 섬기지 않는 것은 자네 마음에 달렸으니 달리 마음 쓸 건 없네. 자네의 병이 오래되어 낫지 않기에 내가 권하는 것이라네.”

며칠이 지난 후 병든 친구가 수닷타를 불러 말했다.

“자네가 나를 위해 세존과 그 제자들을 청해 주기 바라네.”

수닷타는 곧 부처님과 스님들을 청했다. 부처님이 호시의 집에 이르자 밝은 광명이 온 집 안에 두루 비쳤다. 호시가 이 광명을

보는 순간, 마음이 기쁘고 몸은 가벼워졌다. 부처님은 자리에 앉아 호시를 위로했다.

호시는 부처님께 사죄했다.

“저는 해와 달을 섬기고 왕과 조상들을 공경하면서 항상 마음과 몸을 깨끗이 하고 부정한 일을 멀리하려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와 덕을 입지 못했음인지 아직도 병을 앓고 있습니다. 약이나 침 또는 뜸 같은 것은 아예 문 안에조차 들이지 못하게 했으며, 경전이나 계율의 복덕에 대해서는 본래부터 알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조상 때부터 지켜 오던 일임으로 이렇게 살다가 죽을까 합니다.”

부처님은 호사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이 세상을 살다가 뜻밖의 불행한 사고로 죽는 데는 세가지 이유가 있소. 병들어 있으면서도 그것을 치료하지 않는 것이 그 첫째이고, 치료는 하면서도 환자로서 삼갈 것을 삼가지 않는 것이 그 둘째이며, 교만하고 방자함으로써 거스르고 따름[順逆]을 알지 못하는 것이 그 셋째 이유요.

이와 같은 사람의 병은 해와 달이나 국왕, 또는 조상과 부모가 고칠 수 있는 것이 아니요. 밝은 도리로써 시간을 따라 차근차근 고쳐야 하오. 그 도리란 추위와 더위에서 온 병은 의약으로 고치고, 샷된 일과 악귀로 말미암아 생긴 병은 경전과 청정한 계율로 고치며, 어진 사람을 섬김으로써 얻은 자비심으로 빈궁과 재난을 구제하는 것이오.

그와 같은 덕은 천지신명을 감동시켜 많은 사람을 복되게 하고, 큰 지혜로 번뇌 망상을 없애 준다오. 이와 같이 행하면 현세에서 평안하고 복을 얻어 뜻밖의 재난을 당하는 일도 없을 것이오.”

부처님은 다시 계송으로 말씀하셨다.

해를 섬기는 것은 밝기 때문이요  
부모를 섬기는 것은 은혜 때문이며  
국왕을 섬기는 것은 권력 때문이고  
도인을 섬기는 것은 가르침을 듣기 위해서다

건강을 위해 의사를 섬기고  
이기기 위해 세력에 기댄다  
법은 지혜 있는 곳에 있고  
복을 지으면 세상에 빛난다

벗을 사귀는 것은 일을 위해서요  
친구와 헤어지는 것은 급한 때이며  
아내를 바라보는 것은 사랑을 위함이니  
밝은 지혜는 설법 안에 있다

스승은 중생을 위해 법을 펴나니  
의문을 풀어 지혜를 얻게 하고  
청정한 행동의 근본을 깨우쳐서  
법의 보배를 받아 지니게 한다

많이 들음은 현세의 이익  
아내와 자식 형제와 친구를 잊게 하고  
후세의 복을 가져오나니  
듣고 또 들어 성인의 지혜를 이룬다

지혜는 근심과 걱정을 훌어 버리고  
상서롭지 못한 쇠망을 없애나니

안온한 행복을 얻으려고 하면  
많이 들은 사람을 따라야 한다

호시는 이와 같은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의심의 구름이 맑게  
건졌다. 지혜로운 의사의 치료를 받고 도의 덕에 의지하니, 몸이  
편하고 온갖 근심 걱정이 사라져 감로수를 마신 것 같았다.

-〈법구비유경〉다문품

### \*법정 스님 강론

남의 말을 듣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진심으로 들을  
때 진정한 만남이 이루어진다. 요즘처럼 저마다 자기 말과 주장만을  
내세우는 세태 속에서는 단절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인간끼리의 의사  
소통이 깨지는 이유도 사람들이 남의 말을 진심으로 듣지 않거나, 건너  
오는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이다. 듣는다는 것은 바깥 것을  
매개로 자기 안에 잠들어 있는 소리를 깨우는 일이다.

귀 기울여 들을 줄 아는 사람은 그 말에서 자기 존재를 발견한다. 그러  
나 자기 말만을 내세우는 사람은 자신을 잊어버리기 일쑤다.

미하엘 엔데의 동화〈모모〉에는 이런 구절이 나온다.

“별들이 우리에게 들려준 이야기를 남한테 전하려면 그것에 필요한  
말이 우리 안에서 먼저 자라야 한다.”

‘말’이 되기까지는 우리들 안에서 씨앗처럼 자라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듣는다는 것은 곧 자기 것을 비우기 위해 침묵  
을 익히는 기간이다. 침묵 속에서 자란 성인들의 말은 솔직하고 단순  
하다. 그렇기 때문에 복잡한 의식 속에서 메말라 가는 사람들의 뜰  
을 되살려 준다. 그래서 부처님을 가리켜 의왕醫王 또는 법왕法王이  
라고 부르기도 한다.

## 정취보살正趣菩薩

선재동자는 가르침을 받고 곧 정취보살이 계신 데로 나아가 절을 올리고 합장하고 서서 말했다.

“성자시여, 저는 이미 위없는 보리심을 발했지만, 보살이 어떻게 보살행을 배우며 어떻게 보살도를 닦는지 알지 못합니다. 듣건대 성자께서는 잘 가르쳐 주신다 하오니, 말씀해 주소서.”

정취보살이 말했다.

“선남자여, 나는 보살의 해탈을 얻었으니 이름이 보문속질행<sup>普門速疾行</sup>이다.”

선재동자가 말했다.

“성자께서는 어느 부처님에게서 이 법문을 얻었으며, 떠나오신 세계는 여기서 얼마나 멀며, 떠나오신 지는 또 얼마나 됩니까?”

“이 일은 알기 어려우니, 모든 세간의 천, 인, 아수라, 사문, 바라문들도 알지 못한다. 오로지 용맹정진해 물러가지 않고 겁이 없는 보살들로, 모든 선지식이 거두어 주고 부처님이 생각하시고 선근이 구족하고 뜻이 청정해 보살의 근기를 얻고 지혜의 눈을 갖춘 이라야 듣고 지니고 알고 말할 수 있다.”

“성자시여, 제가 부처님의神通력과 선지식의 힘을 받들어 능히 믿고 받겠사오니 말씀해 주소서.”

“선남자여, 나는 동방 묘장<sup>妙藏</sup>세계의 보승생<sup>普勝生</sup> 부처님 처소에서 이 세계에 왔으며, 그 부처님 처소에서 이 법문을 얻었고,

거기서 떠난 지는 말로 다할 수 없는 오랜 겁 전이다.

한 생각 속에 말할 수 없이 많은 걸음을 걸었고, 걸음마다 말할 수 없이 많은 부처님의 세계를 지나왔는데, 낱낱 부처님 세계마다 모두 들어가 부처님께 아름다운 공양거리로 공양했다. 그 공양거리는 모두 위없는 마음으로 이룬 것이며, 지음이 없는 법으로 인정한 것이며, 모든 여래께서 인가한 것이며, 모든 보살이 찬탄한 것이다.

나는 또 저 세계의 중생들을 보고 그 마음을 모두 알며 그 기질을 다 안다. 그들의 소망과 이해를 따라 몸을 나타내어 법을 말하는데, 광명을 놓기도 하고 재물을 보시하기도 해 갖가지 방편으로 가르치고 조복하기를 잠시도 쉬지 않았다. 동방에서 하듯이 남방과 서방과 북방과 네 간방과 상·하방에서도 그와 같이 했다. 선남자여, 나는 이 보살의 보문속질행 해탈을 얻었으므로 빨리 걸어 모든 곳에 이른다. 그러나 저 보살마하살들은 시방에 두루 해 가지 못하는 데가 없고, 지혜의 경계도 같아서 차별이 없다. 몸을 잘 나타내어 법계에 두루 하되 모든 길에 이르고 모든 세계에 들어가며, 모든 법을 알고 모든 세상에 이르러 평등하게 모든 법문을 말한다. 한꺼번에 모든 중생에게 비추고 부처님들께 분별을 내지 않으며, 모든 곳에 장애가 없는 일이야 내가 어떻게 알며 그 공덕의 행을 말할 수 있겠는가.

여기서 남쪽으로 가면 타라발지<sup>墮羅鉢底</sup>라는 성이 있는데, 거기 대천신<sup>大天神</sup>이 있다. 그대는 그에게 가서 ‘보살이 어떻게 보살행을 배우며 어떻게 보살도를 닦느냐’고 물으라.”

선재동자는 그의 발에 엎드려 절하고 길을 떠났다.



## 살 만큼 살다가 돌아가 의지할 곳이 어디인가

그동안 별로 없으셨습니까? 더위와 폭우, 게릴라성 집중 호우에 별일 없었기를 바랍니다. 제가 사는 곳에도 비가 많이 왔습니다. 골짜기의 반석이 물에 씻겨서 드러날 정도로 그렇게 비가 왔습니다.

휴가들 잘 다녀오셨어요? 휴가 다녀오신 분들, 손 한번 들어 보세요. 쓰레기들은 어떻게 하고 오셨어요? 양심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아직도 평균적인 한국인의 자질은 수준이 낮은 편입니다. 강물마다 온갖 쓰레기로 뒤덮인 모습을 보는데, 이것이 우리 한국인의 현주소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생활 모습이고 우리의 속 얼굴이에요.

휴가철에 도로를 다니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고속도로나 국도가릴 것 없이 주말만 되면 차들로 꽉 막혀서 평소 두세 시간이면 갈 거리가 열 시간 이상 걸리기도 합니다. 거의 주차장이예요. 그 많은 차가 내뿜는 배기가스가 어디로 갑니까? 이게 집중 호우를 만들어요. 배기가스가 구름층을 형성해서 이상 냉각과 이상 고압 현상을 유발하는 겁니다. 결국 기상 이변은 자연재해가 아닙니다. 사람이 만들어 내는 재앙이에요.

자연이란 무엇입니까? 커다란 생명체입니다. 길을 낸다고, 건물을 짓는다고 그렇게 토막토막 난도질해 놓으니 이 생명체가 어떻

게 살아납니까? 사람은 자연이라는 커다란 생명체의 한 지체입니다. 자연이 병들면 그 지체인 사람도 온전할 수 없습니다.

옛날에 팽이나 삼을 쓸 때는 피해가 그리 크지 않았습다. 요새는 중장비가 발달해서 산을 완전히 톱질해 놓은 것처럼 깎아 없애요. 듣자 하니, 어떤 비결秘訣에 그런 내용이 나온대요. 뿔이 하나 달린 짐승인 일각수一角獸가 나와서 온 나라를 막 파헤쳐 버린대요. 이것이 포클레인 아니겠습니까? 중장비가 들어와서 국토 어느 곳 할 것 없이 다 깎아뭉개잖아요. 이것은 자연재해가 아니라, 인간 스스로 저질러 놓은 재앙이에요. 자업자득입니다.

자연은 그 나름의 질서를 지니고 있습니다. 스스로 정화하는 자정 능력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기술 문명이 이와 같은 자연의 질서와 능력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문명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독약입니다. 정신적인 독약이에요. 문명은 사람의 손으로 일구어 놓은 겁니다. 자연은 원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에요. 현대 과학 기술 문명의 문제점은 환경 오염과 생태계 파괴에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 과학 기술의 발전은 전통적인 세계관을 허물고 문화의 혼란을 가져옵니다. 이런 세태에 살기 때문에 돈과 권력, 육체적 향락, 경제 부흥만을 최고의 가치로 여겨요. 우리 귀에 못이 박히도록 날아드는 각종 비리와 부정부패는 이런 데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를 끝없이 시끄럽게 하고 짜증스럽게 하는 요인이 바로 이런 데 있습니다.

마하트마 간디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손을 더 이상 손으로 사용하지 않게 된 것은 가장 큰 비극이다. 손은 신이 우리에게 준 귀중한 선물이다. 기계에 대한 열광이 지속된다면 마침내 우리는 너무나 무능력하고 나약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고마운 생명의 손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을 저주하게 될 날이 올 것이다.’

신이, 자연이 우리에게 준 손이 제구실 못 하고 머리로만 살려고 하는 현대인에게 보내는 경종입니다. 머리와 기계로만 사는 현대인은 허약합니다. 대지에 뿌리를 내리고 있지 않습니다. 지극히 관념적인 인간이 됩니다.

우리가 의지해 살아가는 이 대지는 단순한 흙덩이가 아닙니다. 우리가 밟고 다니고, 우리가 집을 짓고, 또 씨앗을 뿌려서 곡식을 거두는 이 대지는 단순한 흙더미가 아닙니다. 흙과 식물과 동물이 서로 주고받는 조화로운 순환이 있어요. 그런 조화로운 순환은 모든 살아 움직이는 것의 에너지 원천입니다. 대지는 많은 식물과 동물이 한데 어울려서 서로 주고받으며 건강한 조화를 이루는, 막강한 에너지를 지니고 있는 세계입니다. 이와 같은 대지를 함부로 허물고 더럽힌다면 결국 사람이 지낼 곳이 없게 돼요.

우리나라도 농토가 자꾸 줄어들어요. 수입 농산물이 싸니까, 농사일이 수지에 안 맞으니까, 농경지를 침식해서 거기에 공장을 짓고 골프장을 만들고 별짓을 다 하지 않습니까? 몇 사람들 즐기 위해서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식량이 어디서 나와요? 미국이나 중국처럼 넓은 땅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결국 식량을 무기화한다고요. 대지가 병들면 그 지체인 사람도 살 수 없습니다. 자연은 커다란 생명체예요. 어떤 생태학자의 표현을 빌리자면, 산은 하나의 커다란 나무와 같대요. 산을 허물면 나무 밑의 수맥이 다 흘러서 더 이상 나무가 살 수 없게 된답니다.

제가 오늘 말하고자 하는 요점은 생태 윤리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대지의 건강을 위해서 자신의 의무를 깨닫고 실천하는

것, 이것이 생태 윤리예요. 윤리는 말보다는 실천에 그 의미가 있습니다. 순간순간의 작은 결정에 달려 있어요. 생태계를 보전하는 일은 어찌 보면 아주 간단합니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자원은 우리 조상들이 남겨 놓은 유산이에요. 우리 조상들이 탕진하지 않고 후손들을 위해서 남겨 놓은 유산을 지금 우리가 받아서 쓰고 있는 겁니다. 우리 역시 이다음 세대의 필요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다음 세대가 누구입니까? 우리 자식이고 형제이며 우리의 내생이에요. 우리 조상이 우리에게 물려준 그 은혜를 받아서 쓰고 있듯이 우리 또한 미래 세대를 위해서 무언가 남겨 두어야 돼요. 앉은자리에서 싹쓸이하게 되면, 내일을 생각하지 않으면, 희망이 없어요. 미래가 없습니다.

지구로부터 얻은 물자를 소중히 다루는 것은 곧 지구 환경을 보살피고 돌보는 일입니다.

캐나다에서는 매년 1만 7,000헥타르의 원시림을 엄청난 광고가 실린 미국의 신문 용지를 대기 위해 벌목하고 있어요. 1헥타르가 얼마나 넓은지 우리나라 사람으로서는 감이 안 잡힐 겁니다. 그건 캐나다만이 아니예요. 인도네시아 등지의 처녀림이 그렇게 망가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구가 몇 년 안에 사막화될 거라는 이야기도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받아 보는 신문 용지가 어디서 온 것인지도 헤아려 봐야 합니다.

나 한 사람이 무슨 영향이 있을까 하는 생각은 마십시오. 그 한 사람의 생각이 중요합니다. 한 마음이 청정하면 온 법계를 청정하게 만들잖아요. 한 마음을 잘 쓰는 사람들의 영향으로 인해 인류 문화가 생성되고 꽃피웁니다. 한 사람의 마음이 그런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그것은 꼭 성자들의 마음만이 아닙니다.

아름다움은 자연스러움에 있습니다. 삶 자체가 자연스러워야 돼요. 그러면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습니다. 얼굴이나 몸매에도 얽매이지 않고, 가진 것이 많거나 적은 것에도 마음 쓰지 않습니다. 또 남과 비교하지도 않습니다. 꼭 필요한 것만 갖고 불필요한 것에 욕심을 부리지 않습니다. 최소한의 필요에 만족하고 허황된 욕심을 부리지 않습니다. 이게 가장 자연스럽게 사는 것입니다. 아름다움은 이런 자연스러움에서 배어나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건드리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의 삶이 그만큼 건강해져요. 있는 그대로 두세요. 얼굴이 뻤건 자연이 뻤건 있는 그대로 두어야 합니다. 자꾸 이리 뜯어고치고 저리 뜯어고치게 되면 원형이 없어져요. 본래 모습이 사라집니다.

자연은 있는 그대로의 궁극적인 존재예요. 신이 만들었다고 하지만, 누가 만들었건 그대로 있는 궁극적인 존재입니다. 우선 편리하다고 해서 문명의 연장에 지나치게 의존하게 되면 그 문명의 연장으로부터 반드시 상처를 입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 놓은 문명은 정신적인 독약이에요. 문명에서 온 질병은 문명으로는 고칠 수 없습니다. 자연만이 그 병을 치유할 수 있어요. 문명의 해독제는 자연밖에 없습니다.

흙과 나무와 풀과 새와 짐승을 가까이하십시오. 또 구름과 별과 달과 바람과 이슬을 보고 우주의 아름다움과 신비를 느껴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안에 들어 있는 자연스러움을 함께 일깨울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 만큼 살다가 돌아가 의지할 곳이 어디인지 가끔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남은 여름 더위에 건강히 지내십시오.

- 2002년 8월 18일 법정 스님 길상사 정기법문 중에서

## 6. 다실에서 / 류시화 시인의 시

### 낙타의 생

사막에 길게 드리워진

내 그림자

등에 난 혹을 보고 나서야

내가 낙타라는 걸 알았다

눈썹 밑에 서걱이는 모래를 보고서야

사막을 건너고 있음을 알았다

웅이처럼 변한 무릎을 만져 보고서야

무릎 기도 드릴 일 많았음을 알았다

많은 날을 밤에도 눕지 못했음을 알았다

자꾸 넘어지는 다리를 보고서야

세상의 벼랑 중에

마음의 벼랑이 가장 아득하다는 걸 알았다

혹이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음을 보고서야

무거운 생을 등에 지고

흔들리며 흔들리며

사막을 건너왔음을 알았다



## 7. 맑고 향기롭게 사는 사람들

### 중앙모임 (02-741-4696)

#### ■ 맑고 향기롭게 정기 활동 안내

##### \*맑고 향기로운 반찬 나눔 조리 활동

맑고 향기롭게 중앙모임에서는 우리 주변에 홀로 사는 어르신, 장애인, 결손 가정 460여 가구에 매주 목요일에 밑반찬 2가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명절(설날, 추석)과 정월대보름, 부처님오신날에는 생필품을 나누고 연말에는 김장 김치를 대상자 가정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전 9시부터 시작되는 활동으로, 조금 힘든 일도 마다하지 않고 씩씩 해 주실 수 있는 봉사자의 손길을 절실히 기다립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 드립니다.

##### \*서울노인복지센터 만발식당 급식 자원활동

서울 종로구 안국역 옆에 위치한 어르신 이용시설 '서울노인복지센터'에서는 어르신의 건강한 노년기와 영양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고, 건강한 식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만발식당을 급식 자원봉사자분들과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발식당은 어르신들의 사정에 따라 무료 또는 4,000원을 부담하는데, 하루 800여 명이 넘는 어르신들께 점심을 제공하고 있으며, 맑고 향기롭게 자원활동팀은 매주 월요일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함께 동참하고 싶은 분들은 오전 10시까지 서울노인복지센터 1층 식당으로 오셔서 맑고 향기롭게 자원활동팀을 찾으시면 됩니다.

#### ■ 숲기행 일정 안내

2024년 맑고 향기롭게 중앙모임 숲기행은 법정 스님 인연 사찰 “옛 절을 찾아서”로 진행됩니다.

진행일	장 소	접수일
9월 28일(토)	경남 합천 해인사	9월 2일(월)
10월 26일(토)	경북 김천 직지사	10월 1일(화)

- 참가비 : 회원 45,000원, 비회원 60,000원
- 점심 제공, 여행자 보험 가입
- 후원회원의 할인 기준 : 첫 회비 납부 후 3개월이 경과하고, 최소 3만원 이상 후원하신 분에 한해서 할인 혜택 제공
- 참가 신청은 중앙모임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하세요.

#### ■ 월간 맑고 향기롭게 원고 투고 안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회원님의 귀중한 원고를 기다립니다. 중앙모임과 각 지역 모임(대구, 광주, 경남모임)에서 자원봉사 활동이나 신행 활동을 하시면

서 순간순간 떠오르는 느낌이나 함께 나누고 싶은 생각 그리고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과 나누었던 따뜻한 감동의 이야기, 드러내지 않고 실천했던 활동 속에서 가슴 찡하게 느낀 속마음을 글로 나눠 주세요. 또는 자연의 소중함이나 친환경적인 삶을 실천하는 경험담, 회원들과 함께 실천하기를 권하고 싶은 이야기도 나누어 주세요.

월간 소식지에 수록된 분에게는 법정 스님 저서 '무소유'를 선물로 드립니다.

- 원고 규격, 분량 : 한글 문서 기준 1,400자 내외(A4용지, 글씨 크기 10pt 1쪽 분량) 산문 형식
- 접수 방법 :  
- 글 쓰신 분의 간략 소개, 활동하시는 내용 소개와 더불어 원고를 clean94@hanmail.net 메일 접수

#### ■ 마음을 맑고 향기롭게

- 소식지 우편 발송 자원 활동 : 4일(수) 오전 10시 세계일화실
- 책 읽기 모임 :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세계일화실
- 향기 우체부 소모임 : 격주 금요일 오전 10시 세계일화실

#### ■ 세상을 맑고 향기롭게

- 서울노인복지센터 급식 자원 활동 :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 서울노인복지센터 1층 만발식당
- 반찬 나눔 자원 활동 : 매주 목요일 오전 9시 맑고 향기롭게 조리장
- 뜨개질 소모임 : 매주 목요일 오후 1시 세계일화실 / 비대면 활동

#### ■ 연말 재정 후원

- 인도 다람살라 잠양(jamyang) 비구니 스님 학교 후원

### 대구모임 (053-753-8883)

#### ● 마음을 맑고 향기롭게

- 심리치료, 상담, 정서지원 운영 : 매주 월요일 저녁 7시

#### ● 세상을 맑고 향기롭게

- 사각지대(아동, 청소년, 홀로어르신) 반찬 지원 활동 :  
매주 수요일 오전 9시
- 경로 급식 및 웃음치료 : 매월 마지막 토요일 오전 9시
- 성폭력 피해 청소년 지원 /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 청도 운문사 봉사활동 : 매월 셋째 월요일 오전 8시30분 집결후 이동
- 저소득층 자활, 중독자 지원 / 보호시설종료(자립준비) 청소년·청년 지원

#### ●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 무소유 기행 / 아나바다 공유 사업 비정기 진행

#### ● 난치병 환우 돕기를 위한 복합문화공간 '함께' 운영(2층)

- 셀프 카페, 셀프 밥상, 공간 대어

- 법정 스님 문화관 운영(5층)
- 각종 자원봉사 활동(1365 등록 기관)

### 경남모임 (055-266-0170)

- **보현행원(무료 노인 요양원)** : 매월 셋째 수요일 말벗 및 빨래 노력 봉사 / 오전 9시 30분 사무국 출발
- **사파복지회관 무료 급식소** : 매월 넷째 주 화요일과 매주 토요일 점심 준비 및 설거지, 배식 봉사 / 오전 10시~오후 2시
- **해 뜨는 교실(봉림청소년문화의집)** : 저소득층 초·중·고등학생 공부방에 학습 지도 및 간식 지원
- **결연 가정 후원** : 월 생활비 지원, 밀반찬 및 김장김치 나누기 / 명절 및 가정의 달 세대 방문 성금 및 생필품 전달
- **장학금 후원** : 결연 세대 청소년 장학금 지원

### 광주모임 (062-236-3129)

- **점심 공양 나눔** : 매주 월요일~금요일 / 고령자, 저소득, 독거 어르신을 대상으로 천 원의 밥상(점심) 운영 / 오전 9시 30분~오후 2시 / 봉사자 및 후원자 모집
- **김치 담그기** : 매주 토요일 진행
- **자비의 도시락 나눔** : 매주 월요일~금요일 / 저소득 가정에 도시락 나눔
- **장터 및 바자회, 쓰레기 줍기 캠페인** : 비정기적으로 회원 및 봉사자들 참여 진행
- **독서, 노래 모임** : 법정 스님 저서 읽고 회원들과 교류

### 맑고 향기롭게 근본도량 길상사 (02-3672-5945)

#### 초하루 법회 및 초삼일 신중기도

- 일시 : 9월 3일(화)~9월 5일(목) 오전 9시 50분
- 장소 : 극락전
- 주지스님 법문과 기도 집전합니다.

#### 천수다라니 33독 3년 기도

- 일시 : 9월 7일(토) 오후 6시~8시 30분
- 장소 : 극락전
- 한 가지 소원의 성취를 일념으로 발원하고 신묘장구대다라니를 독송하면 관세음보살의 가피력으로 원하는 바가 속득성취되는 영험한 기도가 천수다라니 기도입니다.
- 개인 축원입니다.
- 공양물(떡, 꽃, 쌀 등) 설판 받습니다.

#### 추석 합동 차례

- 선망 조상님의 음덕을 기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인 법공양을 올리는 추석 합동 차례가 봉행 됩니다.
- 일시 : 9월 17일(화) 오전 9시 50분
- 장소 : 극락전(위패 번호 1번~900번) / 설법전(위패 번호 901번부터)
- 동참금 : 5만원(영가 10위까지) / 추가 1위당 5천원  
※ 추석 당일 오전 8시부터 다음날 오후 3시 30분까지 참배 가능합니다.

#### 보름기도

- 일시 : 9월 17일(화) 오전 9시 50분
- 장소 : 극락전

#### 지장재일

- 일시 : 9월 20일(금) 오전 9시 50분
- 장소 : 지장전

#### 관음재일

- 일시 : 9월 26일(목) 오전 9시 50분
- 장소 : 극락전

#### 금강 스님 초청 일요가족법회

- 일시 : 9월 22일(넷째일) 오전 11시
- 장소 : 설법전

#### 추계 관음기도

- 일시 : 8월 19일(월) 입재 ~ 11월 14일(목) 회향
- 장소 : 극락전

#### 2025학년도 대입 수능 100일 기도 입재

- 일시 : 8월 7일(수)
- 회향 : 11월 14일(목)
- 장소 : 극락전
- 동참금 : 15만원  
※ 매일 미사(오후 2시) 특별 기도 축원(한글 금강경 독송 및 동참자 축원)  
※ 설판 접수 받습니다. 설판재자는 매일 법주스님 축원이 있습니다.

#### 마가 스님 열려라 참깨명상 “참 나를 깨우는 명상”

- 일 정 : 매월 둘째주 토요일 14:00~16:00 / 설법전
- 동참금 : 회당 1만원

#### 주지스님과 함께하는 선(禪)명상 “나는 누구인가?”

- 일 시 : 매월 넷째주 토요일 19:00~21:00
- 기 간 : 7월 27일 ~ 11월 23일
- 동참금 : 15만원(총 5회)
- 장 소 : 설법전
- 접 수 : 길상사 템플스테이 홈페이지  
※ QR코드 스캔 - URL 접속 가능



## 사경반 수강생 모집

- 기 간 : 2024년 9월 25일~2025년 2월 26일
- 시 간 : 매주 수요일 13:30~15:30
- 장 소 : 설법전
- 자 격 : 사경에 관심있는 누구나
- 동참금 : 20만원
- 인 원 : 50명
- 준비물 : 사경본(화염경), 붓
- 사경순서 : 삼귀의례 - 발원문 낭독 - 당일 사경 강의 - 명상 - 사경(70분) - 당일 사경 독송 - 축원문 독송 - 반야심경
- 사경을 마친 사경본은 법당에 보관 후 회향식을 거행합니다.
- 접 수 : 길상사 홈페이지에서 수강 신청서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신 후 길상사 이메일(kilsangsa@hanmail.net)로 신청, 종무소로 문의

## 불교입문 48기 수강생 모집

- 일정 : 9월 5일(목) ~ 11월 28일(목) (12주)
- 강의시간 : 매주 목요일 13:30~15:30 / 설법전
- 동참금 : 15만원 (교재비 별도)
- 수강 자격 : 불교에 관심있는 누구나

목차	일정	과목	강사
1강	9월 5일	불교란 무엇인가?	덕조스님
2강	9월 12일	생활속의 불교	덕조스님
3강	9월 19일	붓다의 전생담과 탄생	승범스님
4강	9월 26일	붓다의 수행과 깨달음	승범스님
5강	10월 10일	붓다의 전법과 10대 제자	승범스님
6강	10월 17일	한국사찰 내 구조와 의미	순원스님
7강	10월 24일	사성제와 팔정도	남전스님
8강	10월 31일	삼법인과 중도	남전스님
9강	11월 7일	해탈로 가는 길	남전스님
10강	11월 14일	남한강 유역 옛 절터의 이해	순원스님
11강	11월 21일	사찰 예절과 예불문	덕조스님
12강	11월 28일	색즉시공 공즉시색(반야심경)	덕조스님
수료식	12월 3일(화)	수계의식 / 회향식	

- 계좌 : 신한 140-003-875653 / 조계종 길상사
- 문의 : 02-3672-5945 / kilsangsa@hanmail.net

## (사)맑고 향기롭게 후원 안내

**간편한 CMS 후원** 금융결제원의 중개를 통해 후원자님의 계좌에서 후원금을 인출하여 본회로 입금되는 방식으로서 은행을 직접 방문하는 번거로움이 없습니다.

**신용카드 후원** 나이스페이먼츠 시스템을 통해 후원자님의 신용카드에서 후원금을 인출하여 본회로 입금되는 방식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후원 방법을 신용카드 후원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온라인 자동이체 후원** 후원자님이 직접 원하시는 일자에 매월 일정 금액이 본회로 입금되도록 하는 후원 방법으로, 주민등록증, 통장, 도장을 지참하여 직접 은행에서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후원 금액 변동이나 중단 시 신청한 은행에 직접 가야 합니다.

**지로 후원** 지로용지나 지로 번호를 통해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후원하는 방법입니다. (지로 번호 7618372)

**일시 후원** 뜻깊은 일을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경우, 정기적인 후원이 부담되는 경우, 본회 회원은 아니지만 활동에 공감하여 일시적으로 후원하고자 하는 경우, 다달이 소식을 받아 보는 우편비로 소정의 금액을 후원하고자 할 때, 직접 본회 후원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입니다.

### 정기 후원 · 회원가입

본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후원회원 가입 절차에 따라 각 지부를 선택하여 후원 등록하거나, 각 지부 사무국에 방문하여 가입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 각 지역 모임 후원 계좌

#### \*중앙모임 02-741-4696

일반 사업 후원 계좌 : 국민 817-01-0253-129  
 하나 201-890400-87705  
 농협 029-01-199412  
 결식 이웃 후원 계좌 : 국민 817-01-0255-458  
 신한 100-013-787953  
 장학금 후원 계좌 : 하나 220-890015-10204

#### \*대구모임 053-753-8883 후원 계좌 : 대구 002-05-016277-8

#### \*경남모임 055-266-0170 후원 계좌 : 농협 932-01-002933

#### \*광주모임 062-236-3129 후원 계좌 : 농협 355-0018-7812-13

(사)맑고 향기롭게는 종교 법인으로 인가되어 후원하신 금액은 연말정산 시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라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